

지역 건설업계 “올해도 힘들다”

업체 절반이 지난해보다 수주액 감소

혁신도시·호남운하 건설도 비관적 전망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절반
가량은 지난해 건설수주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올해 건설경기도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 4곳중 3곳은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와 나주혁 신도시 건설, 새 정부의 호남운하 개발 계획 등으로 불구하고 건설업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전남 건설업체 213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113개)가 지난해 수주액이 ‘2006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이들은 올해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 46%(98개)가 ‘비관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망이 밝다’는 응답은 17%(37개)에 그쳤으며, ‘평년 수준’은 37%(78개) 수준이었다.

지역 건설업체 두 곳 중 한 곳은 지난해 경영실적이 좋았고, 올해 경기 전망도 어둡게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응답자의 74%(158개)는 지역 건설업종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반적인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독 지역 건설업계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 업계의 반응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대형공사의 수주 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부도 및 폐업으로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는 75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1천179개)의 6.4% 수준으로, 전출 업체(93개)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이같은 수주확대가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지역 건설업종 미래는



■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은



함께 1년새 지역 건설사 100개 중 14개사가 문을 닫거나 타 지역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올해 전남은 공공부문 수주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여수엑스포 유치에 따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나주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주는 1.5% 가량 늘어난다는 게 전남도회측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수주확대가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파트 등 민간부분의 위축이 불가피한 데다 올해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겸업제한 폐지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대상 공사규모가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중소업체의 경쟁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저임금고용, 부실시공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확대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기자 choice@kwangju.co.kr

금호타이어, 미국에 생산공장

조지아주 50만m² 규모 내년 하반기 완공…북미시장 공략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조지아주 메이컨-립 카운티 내의 50만m² 부지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올 상반기 내에 착공, 2009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국공장 건설을 위해 메이컨-립 카운티(Macon-Bibb County)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금호타이어 오세철 사장과 소니 퍼듀 조지아주 주지사, 켄 스튜어트 조지아주 상무장관 등이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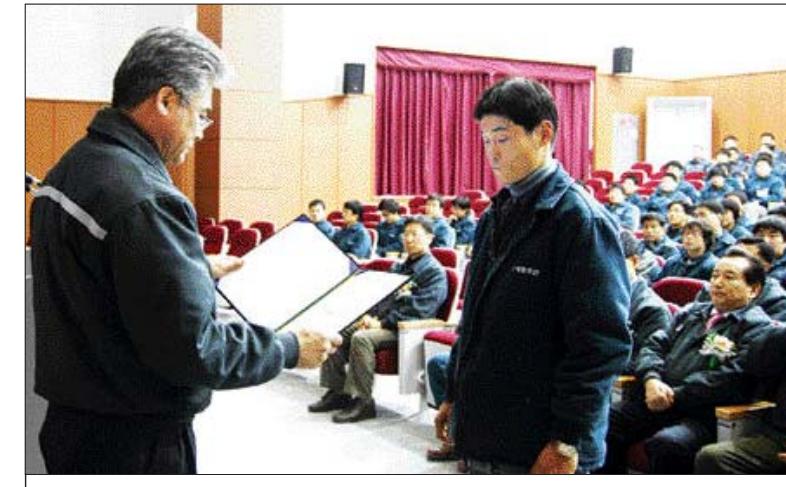
금호타이어는 새로운 자동차 생산

였다.

미국공장은 초고성능(UHP)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게 되며, 생산제품은 미국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신차장착용 제품뿐만 아니라 교체용 시장에도 판매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내년까지 중국·베트남 생산능력을 포함해 연간 7천700만개의 국내외 총생산능력을 확보한데 이어 2015년 ‘글로벌 탑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기술교육원이 28일 제 1기 148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이들은 수료식과 함께 대한조선과 협력업체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조선 제공)

‘상조서비스’ 난립

소비자 피해 급증

소액을 장기간 적립식으로 받고 나중에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서비스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요 피해사례 유형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피해유형 중에서는 우선 난립한 상조업체들이 도중에 도산 또는 폐업함으로써 선불식으로 납부한 납입금을 날리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업체들은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 환급을 거절 또는 지급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휴대전화로 공항 수속

SK텔레콤 안내서비스

휴대전화 한 통화로 인천공항 탑승 수속이 5분이면 가능해진다.

SK텔레콤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휴대전화를 통해 국제선 탑승수속은 물론 항공권별 출발·도착시간 안내, 주차 안내 등 각종 공항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 일자가 주후 확정된다.

이 서비스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편을 예약한 고객은 휴대전화로 무선 인터넷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3월 코스피 등록

코스닥에 올라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3월말에 코스피에 상장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유가증권시장 이전을 위해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조만간 제출하며 오는 3월14일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상장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이처럼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코스닥에 벤처기업 등 IT 업종이 대세를 이루는데다 대한항공 등 경쟁사가 코스피 등록돼있기 때문이다. 또 코스피 등록 여건을 모두 갖춘 점도 고려됐다.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7천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코스피로 이전되더라도 주가나 주주권리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끝내는데 2~3개월이 걸려 이르면 3월말께

부터 코스피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대한조선 1기 기술교육생 배출

148명 전원 취업… 협력사 등 인력난 해소

해남군 대한조선 해남조선소 제 1기 기술교육원생 148명이 전원 선박회사에 취업, ‘조선 전남’을 일구는 전문인력으로 거듭난다.

지난해 10월말부터 3개월간 융집·취업(융집작업)을 하기 위해 필 요에 따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등 조선 기술교육을 받아온 연수생들은 선박건조에 관한 기술 자격시험인 선급시험에 전원 합격하는 평가를 올렸다.

이들은 28일 열린 수료식에 이어 대한조선과 대불공단에 위치한 대한조선 협력회사 등에서 선박 건조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조선은 올해 매출목표를 1조1천억 원으로 잡은데 이어 3개의 도크가 본격 운영되는 2010년 매출 3조4천억 원, 2015년 매출 7조 원으로 세계 조선업체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됐다.

대한조선 관계자는 “기술교육원은 서남권 일대 중대형 조선소 설립에 따른 관련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요람이자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숙사와 숙식, 커리큘럼에서부터 훈련수당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조선은 올해 매출목표를 1조1천억 원으로 잡은데 이어 3개의 도크가 본격 운영되는 2010년 매출 3조4천억 원, 2015년 매출 7조 원으로 세계 조선업체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대한조선은 올해 매출목표를 1조1천억 원으로 잡은데 이어 3개의 도크가 본격 운영되는 2010년 매출 3조4천억 원, 2015년 매출 7조 원으로 세계 조선업체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판매 급증

작년 315곳 2,149억… 전년보다 11% 증가

전남도내 각 회원농협별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판매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15개 하나로마트의 농축산물 판매액은 2천149억원으로, 2006년(1천936억원)에 비해 11% 신장했다. 이는 회원농협 전체 판매액

의 45%에 달한다. 동협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판매액은 2천795억원으로 설정, 전체 판매액 점유비율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남농협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다른 유통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우선 전환경 농축산물 매장을 확장하고 지역 농축산물 명품판매전, 명절맞이 판촉행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올해 중대형 하나로마트를 5개 이상 신설하고 기존 매장의 경우 리모델링 작업 등을 통해 조합원과 고객 서비스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7곳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의 평균 한우갈비세트는 1kg가 21만9천650원으로 작년 설보다 14.9% 상승했고 할인점에서도 13만3천430원으로 4.9% 올랐다.

가공식품의 경우 CJ 스팸 3호 세트는 백화점에서는 4만1천500원, 대형마트에서는 3만9천900원으로 작년과 같았고 백설 올리브유 5호는 백화점에서는 5.4% 오른 2만500원이나 할인점은 작년과 같은 1만9천500원이었다.

/연합뉴스

설 한우갈비세트 판매값 작년과 비교

백화점 내리고 할인점 올라

올해 설에 판매되는 한우갈비 선물세트의 경우 백화점은 작년 설보다 다소 높아 내렸으나 할인점 가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23~28일 주요 명절 선물용품 17가지의 87개 품목을 선정, 서울시내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7곳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의 평균 한우갈비세트는 1kg가 21만9천650원으로 작년 설보다 14.9% 상승했고 할인점에서도 13만3천430원으로 4.9% 올랐다.

그러나 대형마트에서는 평균 6만2천510원으로 작년보다 10.4%

/연합뉴스

한국물가협회는 최근 7년간 전국 100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한우갈비세트 1kg 가격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작년 설보다 14.9% 상승했고 할인점에서는 4.9% 올랐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올해 설에는

한국물가협회는 최근 7년간 전국 100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한우갈비세트 1kg 가격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작년 설보다 14.9% 상승했고 할인점에서는 4.9% 올랐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올해 설에는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올해 설에는